

aT, AI로 농산물 가격 예측 고도화… 업무 혁신에도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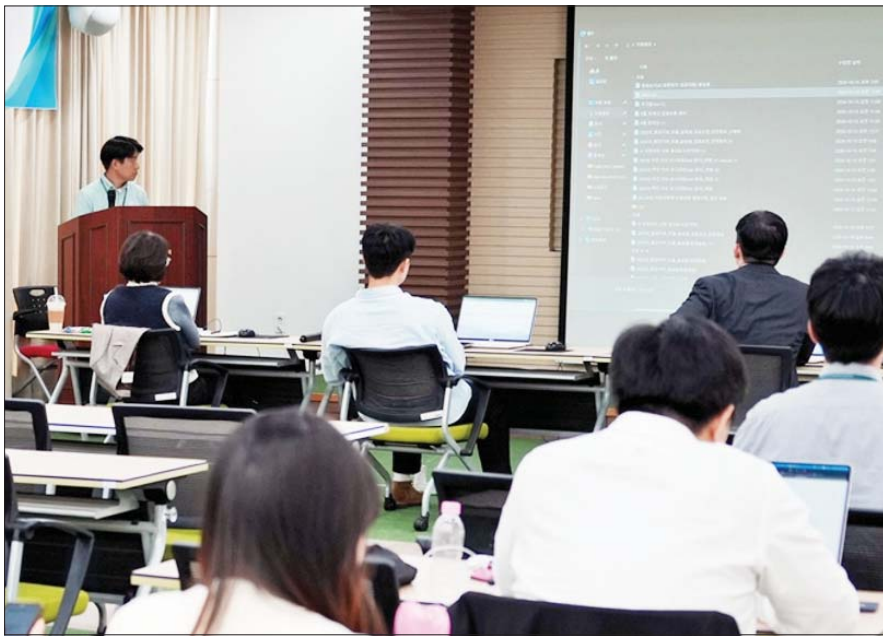
농산물 가격예측 해커톤 566명 참가
본선 15개 팀 선정해 예측 정확도 경쟁
배추·무·양파 등 5개 품목 가격 분석
민간 아이디어 활용해 '농넷' 기능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산물 가격예측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예측의 고도화를 위해 민간의 아이디어도 적극 수렴 중이다. 또 AI를 직원 현장 업무에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의, 사내 역량강화 경진대회도 개최했다.

25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2026년 AI 농산물 가격예측 온라인 해커톤(주어진 시간 내에 주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을 실시 중이다. 이는 참가자의 아이디어를 AI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경연이다. 총 394개 팀·566명이 참가했고,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5개 팀을 지난 23일 선정했다.

aT 관계자는 이 대회 관련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AI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농산물 가격예측 모델을 발굴하고,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농넷'의 가격예측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참가자가 가격예측 아이디어를 제안하



이달 15일 전남광주시 나주 소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 AI 프런티어 성과공유 경진대회'.

/aT

면 상용대규모언어모델(LLM)이 이를 실제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한다. 이처럼 'AI 자동코딩'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코딩 경험이 없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진행된 예선에서는, 외부 전문심사위원 3명이 참가팀의 제안 내용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본선 진출팀을 추렸다.

본선은 10월26일~11월8일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본선 진출팀은 예선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배추, 무, 양파, 간마늘, 건고추 등 5개 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을 예측하고 모형의 정확도를 겨룬다.

aT는 본선 첫날인 이달 26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대회 진행 방식 및 주요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5개

팀에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 1개 팀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우수상 4개 팀에 aT 사장상이다.

aT의 김창국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해커톤은 코딩 경험이 없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AI 기술과 접목해 농산물 가격 예측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수한 예측 모형을 발굴해 농넷의 가격예측 기능을 고도화하고, 농산물 유통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aT는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본사에서 '2026년 AI 프런티어 성과공유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 6건을 선정했다. 대회에선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 업무자동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회는 지난 7~8월 운영한 'AI 프런티어' 교육과정 수료자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업무자동화 모형을 공사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AI 프런티어는 aT가 올해 처음 도입한 AI 전문인력 양성 과정으로, AI-데이터 분석 역량이 우수한 직원 3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6주간 실습교육과 아이디어톤(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발전시키는 프로그램), 전문가 코칭 등을 거

쳐 데이터 분석·시각화와 업무자동화 도구를 직접 개발했다.

15일 열린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작 6건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농산물 가격조사 결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차지했다. 이 시스템은 5개 주요 지역, 80여 개 조사 품목의 주간 가격 변동과 이상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가격조사 담당자의 데이터 점검 효율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신뢰성 및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K-푸드 수출상담 성과측정 시스템'과 '관세장벽 통합 대응 플랫폼'이 뽑혔다.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AI 챔피언' 인증 취득도 지원했다. AI 챔피언은 행안부가 공공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실무 과제 수행 수준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인증이다. aT는 올해 블루등급 6명, 그린등급 1명 등 총 7명의 인증 인력을 배출했다.

김창국 직무대행은 "이번 경진대회는 직원들이 교육에서 익힌 AI 역량을 실제 업무의 문제 해결로 연결한 뜻깊은 자리다. 앞으로도 AI 기반 업무혁신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노동규범 지원

노사협력 통한 노동·인권 대응 강조
국내기업 대상 국제규범 공유 확대

노사발전재단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세에 대응해 국내기업에 대상으로 국제 노동규범 공유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본사에서 '노사상생으로 준비하는 글로벌 ESG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ESG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단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등 글로벌 ESG 규범의 법제화가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인 국내 기업에도 ESG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최근 노동권·인권·산업안전·차별·강제노동·결사의 자유·단체교섭 등 노동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노사가 협력해 노동·인권 분야의 ESG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연우 전문위원은 '2026년 글로벌 ESG 공시 트렌드와 노사협력적 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환경의 주요 변화와 노동·인권 관련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또 노사협력적 관점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고려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국제노동재단의 아이하라 이사장은 '노사협력기반 글로벌 노동인권 실사 대응 사례'를 주제로 일본의 노동분야 지속가능경영 동향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및 주요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글로벌 ESG는 이제 환경 분야를 넘어 노동과 인권을 포함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전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협력하고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글로벌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 초청행사 개최

드림파크 국화축제 연계해 400명 참여
시설 견학·현장 소통으로 상생협력 강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6 드림파크 국화축제'와 연계해 주변영향지역 주민 초청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초청행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이어졌다.

이 행사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협조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천 서구 오류동을 비롯해 왕길동, 경서동, 김포 양촌읍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의 노인회·부녀회 관계자 및 통·이장 등 주민대표 약 400명이 참석했다.

참석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홍보관, 매립지시설, 온실 등을 견학하고 주요 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최 초청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둘러보고 있다.

업 및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또 드림파크 국화축제 행사장을 둘러본 뒤 지역 먹거리장터에서 소통·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조강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부산항 디지털 혁신 역량 세계에 알렸다

세계항만당국자회의서 체인포털 소개
주요 항만과 한적 경쟁력 강화 논의

부산항만공사(BPA)가 세계항만당국자회의에 참석해, 부산항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소개하고 주요 항만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2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2026 세계항만당국자회의(PAR)'에 참석했다. PAR은 2015년 싱가포르해상항만청이 발족한 주요 항만당국 간 연례 협의체로, 국내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회의는 호주 필리파항만공사 주최로 개최됐다. 부산항을 비롯해 싱가포르항, 함부르크항, 로테르담항, 롬비지항, 바르셀로나항 등 세계 주요 20여 개의 항만 당국자들이 참



2026 세계항만당국자회의.

/BPA

석했다. 회의에서는 전 세계 주요 항만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혁신 ▲해운산업 탈탄소화 ▲불확실성 시대의 항만 시스템 강화 등 3개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항

만 운영 효율화와 데이터 연계, 저탄소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각 항만의 경험과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공사의 이응혁 국제물류지원실장은 '항만커뮤니티시스템(PCS)을 통한 부산항 한적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부산항의 대표적인 디지털 혁신 사례인 통합물류정보플랫폼 '체인포털'을 소개했다.

공사는 체인포털을 통한 항만 이용시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선박과 화물의 원활한 연계 및 터미널 간 신속한 한적 운송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부산항의 한적 운영 효율성 및 경쟁력을 높여 온 성과도 알렸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세계 주요 항만들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산항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역보험공사·신보, 감사역량 강화 맞손

AI·빅데이터 활용한 감사기법 협력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기금과 감사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동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으로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지원 역시 투명·공정을 바탕으로 한 신뢰도 제고가 요구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양 기관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책금융 지원에 필요한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 및 내부통제체계 고도화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3일 맺은 협약에서 양 기관은 ▲우수 감사사례 벤치마킹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IT 감사기법 역량 강화 ▲감사활동 전문분야 인력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보는 지난해 12월 '2025년 한국공공기관 감사협회 감사인 대회'와 '2025년 한국감사협회 감사인 대회'에서 그간의 감사성과를 인정받았다.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상 및 청렴윤리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